

휴전선에 서서

박 명 옥

수필가·사진가·본회 회원



길가에 벼포기가 제법 푸른 들판을 이루고 있습니다.

푸른 들판에 학이 찾아와 때이른 허수아비와 함께 한가로이 놀고 있습니다.

산등성이에선 밤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산 밑 과수원에는 신문지로 곱게 싼 포도송이가 하얗게 달려 있습니다.

기다리면 온다던 세월이 40여년

당신의 혼은 새가 되어 북녘 하늘로 훨훨 날아가신지도 오늘로 만 일년이 되었군요.

기다림이란 끝없이 육체를 지치게 하고, 늙게 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걸까요.

당신의 부모님도 그러셨고, 또 당신도 그리 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우리들도 결국은 기다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죽음이란 것도 늙음이나 아픔처럼 우리 인간이 당연히 겪는 것이겠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당신이 새록새록 되살아 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영원성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염이 너무 자랐군요.

당신의 수염을 깎아 드립니다.

북쪽으로 탁 트인 곳도 잡초가 너무 무성하게 자랐군요.

어버이날에 작은 오라버니가 카네이션을 꽃아 드리고, 벌초를 했는데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다니 생시의 당신 마냥 수염이 잘 자라는군요.

당신이 편찮으실 때, 누우실 곳을 찾다가 이곳을 본 순간 얼마나 좋아하셨는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냉기가 엄습해 옵니다.

고향 땅과 같다는 붉은 흙, 무엇보다도 고향이 가까워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시던 아버님

당신의 고향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 옵니다.

저 멀리 새참을 이고 오는 아낙데도 보입니다.

모든 것이 여느 시골 풍경과 똑같이 평화롭게 보입니다.

까치 소리도, 나무위를 기어다니는 송충이와 썩기마저도, 단지 눈가와 콧잔등이 빨개지고 있는 어머니의 옆모습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휴전선이 가로막혀 꿈에도 그리던 고향을 생시에 한번도 가보지 못했던 당신.

이제는 그 누구도 감히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도 보고 싶어했던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 40여년 동안 밀렸던 이야기를 몇 날 며칠, 아니 몇백 년을 나누다가 오십시오.

휴전선 철책 너머의 지뢰밭도, 이쪽저쪽의 총부리도, 매서운 눈길도 당신에게겐 감히 닿지 못할 것입니다.

영혼만이 가진 특권, 무한한 자유가 있으니까요.